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누가 썼는가?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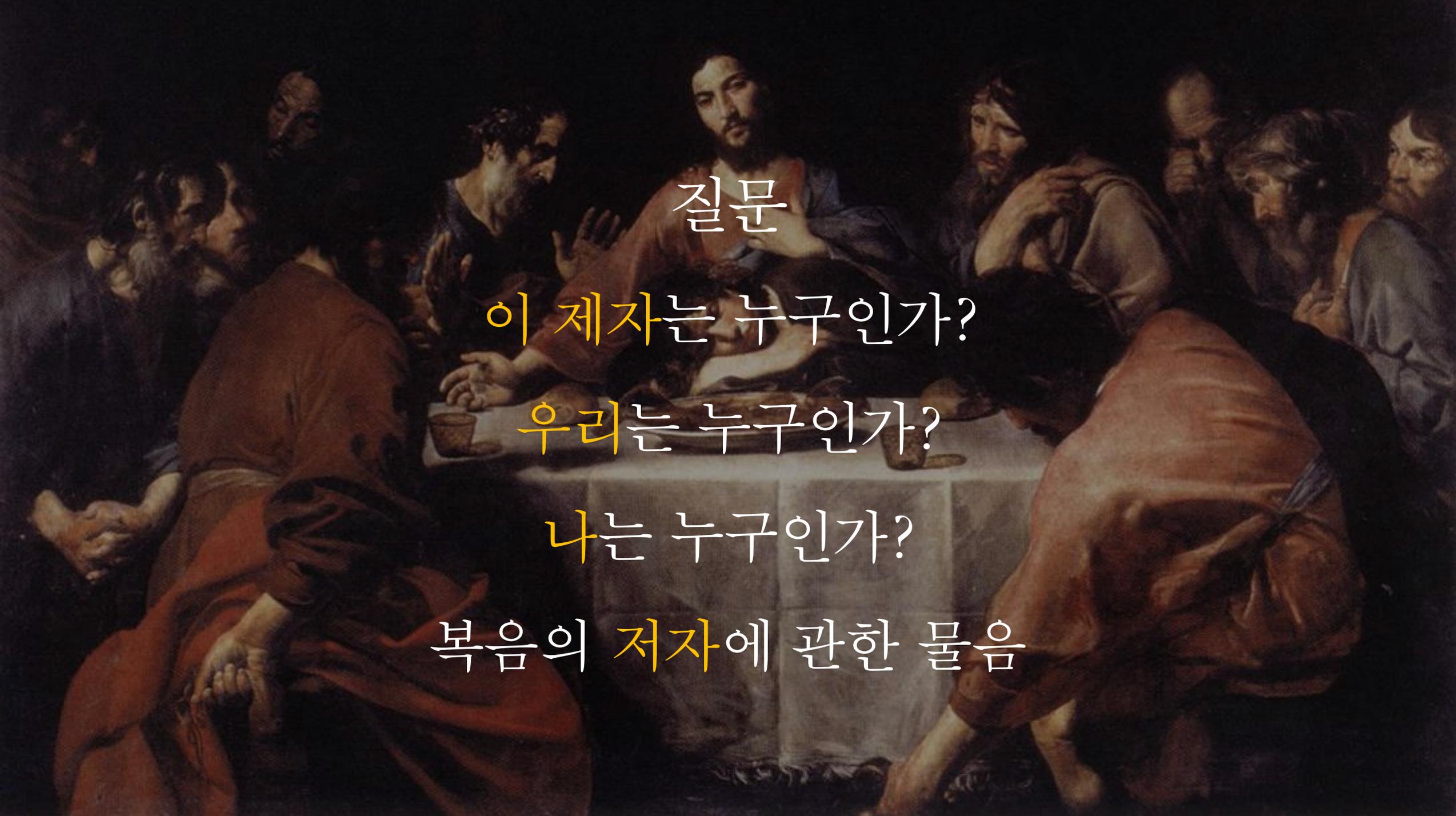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 21:24-25



질문

이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저자에 관한 물음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쓴 사람(들)



공동체에 의한 편집 편집자
전승된 원 텍스트 저자
구전과 전승 증언

단수(나)와 복수(우리)의 혼용은 요한서간에서도 나타난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요한 1:1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요한 2:1

우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 서간의

집단적 저자들의 존재를 암시한다.

요한학과 Johannine school of writers

한가지 가설

근본문헌 Grundschrift

- 훨씬 단순한 마르코 복음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
- 주로 수난과 복음, 기적 이야기에 치중

부가문헌

- 요한복음에만 고유한 내용들
- 특히 '유대인' 이슈



요한복음의 특별한 공동체 의식

요한복음 공동체

공동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3-4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공동체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14, 16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는 공동체

불러오는 공동체(선교사명)



공관복음서 양은 잃어버린 양
요한복음 양은 좀더 관계적
목자와 양의 '서로 알아보는' 관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20:14, 16

마리아의 첫번째 실패-목소리의 실패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주신다.”

마리아의 두번째 실패-스승님 low Christology

굉장히 잘 고안된 장면

-이른 새벽(어두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만남과 알아봄-목자와 목자의 양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무덤 속의 마리아와 마찬가지의 장면

아침이 될 무렵-여전히 어두움

제자들의 실패

게다가 부르심의 장면과 동일한 내러티브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 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공동체라는 특별한 의식

시간의 갭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29

요한복음서는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

대략 100년 전후

게다가 이방인 신자들의 공동체

즉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Martyn, J.Louis

Note: This is not the actual book cover

“요한서에는 **두개의 드라마**가 있다.

‘**그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예수님의 이야기.”

-루이스 마틴

보고서 믿은 사람들의 서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의 서사로 만들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강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26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

예수님의 말과 활동을 '보지 못한 이들'이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

그리하여 과거의 예수님을 현재 속에서 현존하게 하는 것

두개의 트라우마

실로암 못에서 소경의 치유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요한복음 9:22, 34

첫번째 트라우마: 회당에서의 축출

얌니아 회의 Council of Jamnia(1세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바리사이를 주축으로

새롭게 유대교를 계율 중심으로 재편성

이때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회당에서 축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통칭한 것은

이 시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결별을 반영

공관복음서는 바리사이와 사제들, 일반 유대인을 구분

‘유대인’은 요한복음에서
구원의 우주적 드라마의 악역이 됨

두번째 트라우마: 수난과 박해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부활서사가
가장 풍요로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high Christology**를
유난히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

이 두가지 트라우마 앞에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기적들과
구원에 관한 서사를 만들게 됨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결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이들을 위한 복음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가 되었다고도 말함

복음서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예수님을 지금 여기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의 현존성을
어떻게 각자의 마음 속에 살릴 것인가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공동체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

우리의 현재의 지평에서

복음을 어떻게 읽고 소화해낼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